

미래광역도시 성장기반 조성 '집중'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신년브리핑 통해 5대 역점시책 13개 전략과제 제시

전주시가 올 한해 종합경기장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과 스포츠산업 중심 도시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는 등 100만 통합 미래광역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인프라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13일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신년브리핑을 통해 광역도시·도시 개발 분야 5대 역점시책을 제시했다. 5대 역점시책은 △100만 통합 미래광역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인프라 확충 △도시주거환경개선 및 시민 생활의 질 향상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체계적 개발 및 공간구조 재편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취약지구 개선 등을 통한 생활SOC 확충이다.

먼저 시는 종합경기장 부지가 지난 달 전주 전신센타센터 건립 규모 변경 계획이 산업통상자원부 전신산업발전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후속 절차인 타당성 조사 및 행정안전부 투자 재심사까지 모든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동시에 지난해 착수한 종합경기장 철거 실시계획을 마무리하고, 올해 5월 철거공사를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전주시가 올 한해 종합경기장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 등 100만 통합 미래광역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인프라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 들어설 대체 시설인 1층 육상경기장과 야구장도 현재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정비를 통해 용적률 상향 및 층수 제한 폐지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도시계획·건축·경관·교통영향평가·교육환경평가 등의 심의를 통합 운영하여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시는 노후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와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개발 및 공간구조 재편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도시 확장으로 인해 이전이 필요한 전주교도소는 올 상반기 중 이전부지 토지보상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2026년까지 신축·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호천지구 연계도로 확장사업도 기존 1단계 구간(중안나들목~해성

교차로)을 완료한 데 이어, 2단계 구간은 상습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해성교차로~삼천교 구간부터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예코시티 2단계 조성사업도 지난달 말 준공돼 현재 시설물 인수인계 등 사업 마무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동부권 일원 배후 거점도시 조성 과 광역 교통의 중심지가 될 전주역세권 복합개발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시는 올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 △'인후반촌 도시재생사업' 과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도시재생사업' 등에 도시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새뜰마을사업의 경우, 시는 기존 사업이 추진된 도토리골과 남송송동, 동안산동 지역 외에도 전주군경묘지 인근 낙수정마을과 전주교 인근 권원왕궁지구 지역을 추가 추진하기로 했다.

김문기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은 "2024년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시작과 함께 전주의 대도약을 위한 광역도시의 기틀을 마련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될 것이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은 그 중심에서 살기 좋은 전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전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13일 '지속 가능한 수목원 및 정원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속 가능한 녹색환경 조성 '맞손'

전주시-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협약 체결

전주시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13일 전라강영 선화당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류광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 가능한 수목원 및 정원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정정원·민간정원·생활정원에 대한 전문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 △수목원 및 정원 관련 활성화를 위한 식물자원 교환, 기술정보 공유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학술 및 인적 교류,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토대로 오는 5월 2일부터 6일까지 전주에서 열리는 '제4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에서의 협력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동식 반려식물 클리닉 △반려식물 키트 산업전

등을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과 제4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의 기관 협력력을 시작으로 향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류광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원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고, 정원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협약과 전주정원산업박람회에서의 협력은 지속 가능한 녹색 환경 조성과 정원산업의 진흥에 있어 큰 도약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전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립미술관 건축 설계 공모 착수

2026년까지 전주종합경기장 야구장 부지에 건립 예정

전주시가 옛 전주종합경기장 야구장 부지에 들어설 전주시립미술관의 밑그림을 그리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의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한 데 이어 인근에 시각예술을 상징하는 대표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전주시립미술관 건축 설계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전주종합경기장 전시 복합 산업(MICE) 단지 개발계획에 맞춰 옛 야구장 부지에 들어설 전주시립미술관을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과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지닌 건축물로 지을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주시립미술관은 전주종합경기장 옛 야구장 부지에 전시실과 수장고, 교육체험실, 어린이갤러리 등 주요시설을 갖춘 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전주시립미술관이 포괄적이고 다성적인 현대 뮤지엄의 특색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공모를 거쳐 실험적인 설계 작품을 선정기로 했다. 시는 이달 말 희망 건축사를 대상으로 사전 참가 신청을 접수한 후, 현장

설명회를 거쳐 오는 4월에 공모안 작품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후 5월 설계 공모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최종 선정하고, 설계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를 위촉하고 미술관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시는 건립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술관 건축 설계 공모 지침안을 마련하는 등 미술관 건립과 향후 미술관에 들어설 콘텐츠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구체적으로 혁신도시 안에서 일정 시간 이상 가족분노 악취가 확인될 때, 스마트폰 밴드를 활용해 악취가 확인된 위치와 강도를 보고하면 된다.

시는 악취모니터단 보고를 기반으로 악취 발생 상황을 판단하고,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와의 공조를 통해 악취 발생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전주혁신도시 가축분뇨 악취 대응 모니터단 모집

전주시는 전주혁신도시 인근 축산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악취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혁신도시 악취모니터단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악취모니터단은 전주혁신도시 내에 거주하는 시민들로 구성되며, 시는 10개 지정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청자 중

에서 선발할 계획이다. 각 아파트 단지별로 최소 1명 이상의 악취모니터단을 선발한다.

악취모니터단 신청 기간은 13일부터 오는 20일까지로, 신청자가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 공식 자원봉사기관에서 발급된 자원봉사 실적 등을 접수처(반

통로 88, 2층 산단대기관리팀)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시는 거주기간과 자원봉사 실적 등을 고려해 악취모니터단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악취모니터단은 이달 말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이 진행하는 '관능 검사법'에 따른 악취의 세기별 강도 등 악취 교육을 받은 후 오는 3월부터 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저소득 취약계층에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전주시는 14일부터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보일러를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 난방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친환경보일러는 일반 보일러와 비교해 연간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의 약 87%를 감축하며,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열을 흡수·재활용함으로써 약 12%의 열효율 개선 효과가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44만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옥기 기자

올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대당 60만 원씩 총 46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전주시 소재 주택 소유주와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로, 표시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서 환경표지인증 받은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접수 희망자는 전주시 누리집에서 공모문을 확인한 후 보일러 판매 대리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www.ecosq.or.kr/boiler) 또는 전주시청 기후변화대응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풍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